돈황 막고굴에 나타난 다보탑의 변천

A Study on the Change of Da-bo Stupa in Dunhuang Mogao Grottoes

조 정 식

Cho, Jeong-Sik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조 재 현·김 보 람

Jo, Jae-Hyun·Kim, Bo-Ram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a-bo stupa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among architectural languages and by studying the features of its architectural components and transitional changes shown in Da-bo stupa line drawings in Dunhuang Mogao Grotto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st, the Da-bo stupa of Dunhuang faithfully follows the sutra of lotus, and although the form changes, the fundamental essence of Bo-tap-yong-chul and two seated Buddhas provided by the Gyun-bo-tap-pum in the sutra of lotus is consistent. 2nd, the pagoda body can be periodically divided into parasol, stupa, and royal palace types. The parasol type has an incomplete tower body, which makes distinguishing each of its architectural components difficult. The stupa type appeared between the early (AD 618 - 712) and middle (AD 766 - 835) Tang dynasty. It combines the form of Indian stupa type and East Asian wood structural architecture. The royal palace type, which appeared between the peak period of the Tang (713 - 765) and Sung Dynasties, shows the standardized pattern of the Da-bo stupa described as two seated Buddhas and Bo-tap-yong-chul. 3rd, the use of a stylobate does not appear in the early construction of Da-bo stupa, only in the later period, in the form of high pillars. Forms include many Su-mi-jwah and three-way stairways and Dab-do, but as time passes, the forms are simplified to the form of high pillars. 4th, the purpose of early Da-bo stupa was to provide space for Da-bo-yu-rae of Gyun-bo-tap-pum; hence, it did not have sangryoon(the top part). However, after it was influenced by general pagodas, sangryoon was established. Toward the Tang Dynasty, sangryoon has come to emphasize the forms of boryoon(nine wheels) or dome. However, this form is eventually simplified to only retain bo-joo(the orb).

주제어 : 돈황 막고굴, 법화경, 다보탑, 건축요소

Keyword : Dunhuang Mogao Grottoes, The Sutra of Lotus, Da-bo Stupa, Architectural Elem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法華經』 「見寶塔品」에는 다보탑의 명칭과 형태, 그리고 주변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다보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러나 법화경 상의 다보탑에 관한 서술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경전의 해석이 다르게 될 경우에, 다보탑의 건축적 내용은 상이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의 다보탑은 명칭은 같지만 형태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에서, 다보탑이 일반 탑과와는 형태적인 차이가 분명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seoul.go.kr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보탑에 관한 법화경의 관념적 어휘들을 구사하여 일반적인 불탑과 차별화된 건축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돈황 막고굴에는 방대한 양의 불화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다수의 다보탑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남겨진 다보탑도는 돈황 막고굴이 조성되기 시작한 北朝시대부터 宋代와 元代에 이르기까지 다보탑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돈황 막고굴의 불화에 관한 연구는 불교사 및 미술사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이 주로 불경의 해석이나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한정되었기 때문에 막고굴 벽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도, 특히 불탑 및 다보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막고굴 내의 다보탑도는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었던 초기부터 약 1,000여년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장소에서 그려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그려진 다보탑도는 많은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설하는 다보탑의 본질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돈황 막고굴에 남겨진 다보탑도를 대상으로 경전상에 나타나는 건축적 어휘와의 대응관계를 고찰하고, 각 건축요소의 특징 및 그 변천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다보탑의 건축적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한중일 삼국에는 일반적인 불탑과 차별화되는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다보탑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다보탑으로 명명되고 있는 불국사 동탑이 유일한 사례이며, 이 탑에 대하여 주로 형태적 특이성에 치중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는 다수의 다보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축적 특징 및 교리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다보탑에 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현존하고 있는 다보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다보탑의 원형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다.

다보탑에 대한 염원은 법화경 견보탑품에 묘사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었던 시기의 불교인들이 다보여래를 기리는 다보탑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경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전에서 서술하고 있는 다보탑의 원형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초기의 다보탑은 그림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도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돈황 막고굴에는 다보탑의 이와 같은 일련의 변천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요소와 불탑의 구성요소 등이 현존하는 다보탑과 같은 형태로 고착되기 전까지의 전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돈황 막고굴의 기존자료에 나타난 불탑도를 모두 수집하고, 이 불탑도를 시대별, 형태별로 분류하고 건축요소 및 탑과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돈황 막고굴의 불탑도는 총 65기이며, 그 중 다보탑은 31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¹⁾

2. 돈황 막고굴 경변화의 다보탑

2-1. 불탑도 및 다보탑도의 분류

돈황 벽화 중 불탑도는 대부분 경변화와 불교사적화 중에 나타나며, 65건 중 다보탑도가 31건을 차지하고 있다. 돈황 막고굴 건축도 중 탑 모사도는 <Tab.1>에서와 같이 경전에 근거한 경변화에서부터, 고사, 설화 및 역대 명왕기 등 다양한 중국의 역사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경변화중 불탑이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법화경변이며, 그 중에서도 견보탑품이다. 이는 법화경이 佛塔과 佛事の 공덕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화려한 장엄과 의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

Tab.1 The drawing of Buddhist sutra(경전에 의한 경변화)

구분	경변화(37)							불교 사적화	알수 없음
	보우경	열반경	법화경	諸德福田經	미륵경	안불경	維摩詰經		
분포	1	1	32(31)	1	1	1	1	8	18

시기별로 보면, 불탑도는 총 65건 중 41건이 唐代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다보탑은 총 31건으로 수량으로 보면 19건이 나타나는 唐代에 가장 많지만, 29년간 존속한 隋代가 9건을 차지하여 시간 대비 가장 많은 다보탑이 그려졌다.

1)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불탑도 65기는 『돈황석굴전집』 총26권과 『돈황석굴예술』 총22권에서 불탑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벽화에서 발췌한 것이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모사하였다. 본문의 다보탑도 중 ○안의 번호는 <Tab.5,6,7,8>내의 그림 번호를 의미한다.

2) 법화경변 32건 중 다보탑도가 31건이라는 것은 법화경에서도 다보탑의 상징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Tab.2 The drawing of stupa as times(시기별 불탑도)

구분	서위 (선비)	북위 (선비)	북주 (선비)	수 (한)	당(한)				오대 송(한)	서하 (티벳)
					초당	중당	성당	만당		
일반탑		4	3	5	7	5	8	2	1	1
다보탑	2		1	4	6	5	3	4	1	2

돈황건축도 중의 탑은 그 재료와 형식에 따라 목탑, 전석탑, 전목혼합탑으로 나뉜다. 다시 세분하면 목탑은 단층 목탑, 누각식목탑으로 전석탑은 단층전석탑, 다층전석탑으로 나뉘며, 밀교계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국 불탑이 전석탑에 해당한다. 전석탑의 초기형태는 방형 수미좌 기단위에 중형탑신과 상륜을 올린 형태이다. 전목혼합탑은 건축의 골조는 전축으로 하고 거기에 공포, 수장, 지붕을 목조로 첨가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불탑은 단층 전석탑의 형태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다보탑은 전목혼합탑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Tab.3 Classified stupa with a structure(탑 형식에 의한 분류)

구분	목탑		전석탑		전목 혼합	기타
	단층목탑	누각식목탑	단층전석탑	다층전석탑		
일반탑		7	16	2	3	2
다보탑	9	-	3	-	11	7

탑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탑신부인데 돈황의 불탑도에서 다보탑의 경우 일산형, 스투파형, 전각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일산형은 기둥이 없이 햇빛을 가리는 천막으로 이불병좌를 감싸는 형태이다. 스투파형은 중국의 초기 불탑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인도 stupa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형태와 동아시아 목구조 형식이 결합한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형, 후자를 방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각형 다보탑은 그 수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목조로 동시기 목조건축의 세부기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Tab.4 Classified Da-bo stupa as the pagoda body(탑신에 의한 분류)

형태	일산형	스투파형(12)		전각형	기타
		중형	방형		
수량	7	6	6	8	4

2-2. 견보탑품에 나타나는 다보탑의 특징

돈황석굴의 다보탑도는 불탑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료와 형식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탑의 구조와 형식만으로 다보탑을 구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탑도가 일반탑과 구분되는 이유는 법화

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건축도와 불탑도 중에서 다보탑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寶塔湧出과 二佛竝坐이다.

법화경 견보탑품에는 다보탑의 형태를 특징짓는 세 가지 원칙인 寶塔湧出, 三變土田과 二佛竝坐가 있으며, 법화경의 교시가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다.

첫째, 보탑용출은 다보탑이 공중에 솟아올라 모든 대중과 보살들이 탑 아래에서 우러러 보는 것이다.³⁾ 이러한 장면은 높은 基臺와 雲文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다보여래를 모신 탑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조탑공덕과 관계가 있다. 아주 오래 전 동쪽에 계셨던 부처로 이미 열반한 부처이다.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나 나타나 탑을 세우고 법화경이 진실임을 증명하겠다고 서원한 부처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공양하려거든 탑을 세우라고 당부한다.⁴⁾

둘째, 삼변토전은 다보탑과 그 주변이 청정낙원으로 세 번 변화하는 모습이다. 대요설보살이 다보여래를 친견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부처는 고통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바세계를 청정낙원으로 변하게 하고, 석가모니의 분신 불이 모두 모이게 하였다. 사방에서 모인 불자들을 위해 법당을 세 번 변화⁵⁾ 시키는데,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현실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현상 그대로가 진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방편품의 내용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이 장면에서는 다보탑 주위에 모신 대중들이 모두 부처 및 보살로 변하게 되며 청법자들 역시 공중에 떠올라 있다.

셋째, 이불병좌는 다보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석가모니와 다보여래가 자리를 반분하여 앉아 있는 것이다.⁶⁾ 석가모니가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 차원의 부처라면 다보여래는 궁극적 진리를 증명하는 부처이다. 즉 역사적 차원의 부처와 궁극적 차원의 부처가 자리를

3) “그 때 부처님 앞에 7보탑이 하나 있었으니, ①높이는 5백 유순이요 너비는 250유순으로, ②이 탑은 땅으로부터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중략)그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⑤삼십삼천(三十三天)은 하늘의 만다라(曼荼羅)꽃을 비내리듯 내리어 그 보배탑에 공양(供養)하고, 그 밖에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억의 중생들은 온갖 ⑥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악들로 그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4) 본래 탑은 제가자들이 세우는 것으로 원시경전시대에는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으로 인해 조탑공덕이 부처의 교시로 명문화되면서 기존과 달리 적극적인 불사를 권장하는 단서가 되었다.

5) 첫째,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둘째, 강·하천·산을 평평하게, 셋째, 갖은 장엄으로 땅을 청정하게로 세 번 법당을 변화시킨다.

6) 돈황 막고굴의 다보탑도는 만당대 1기(막 14)만을 제외하면 모두 이불병좌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반분함으로서 方便과 실상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두 관념적이지만 보탑용출과 이불병좌는 건축요소로도 표현할 수 있다. 보탑용출은 주변의 구름무늬로 탑이 공중에 떠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을 공중에 머물게 함으로서 보탑의 크기가 크고 높게 표현되며 상대적으로 청법자들을 작게 묘사한다. 특히 보탑용출을 표현하는 데에는 기단부의 건축요소를 적절히 구사하여 기대를 높임으로서 공중에 떠 있는 다보탑을 표현하고 있다. 이불병좌는 자리는 반분하는 형태에 따라 평면의 간살이와 향완의 배치 및 기타 의장요소와 함께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다보탑이 일반 불탑과 달리 전면관 위주로 표현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반해 삼변토전은 견보탑품 내 여러 장면과 함께 설명하여야 하므로 건축요소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탑용출과 이불병좌의 건축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3. 기단부 변화 고찰

기단은 基臺라고도 한다. 건물을 올리기 위하여 터를 고르고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뜻하며, 초석으로 연결된 건물의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단의 조성은 그 지역의 풍토 및 탑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기단은 크게 基身, 계단 및 난간으로 구성된다. 기신의 형태는 탑신의 영향을 받게 되며, 계단과 난간은 건축의 용도와 밀접하다.

3-1. 基身

돈황(막고굴) 다보탑 도에 표현되고 있는 기단은 크게 수미좌식 기단과 가구식 기단으로 나눌 수 있다. 수미좌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단이나 불탁에 사용되는 용어로 건축구조물의 기단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건축용어이다.⁷⁾ 부처가 앉는 자리는 연화좌이며 수미좌로 상용된다는 경전적 의미가 上廣下狹의 우주관으로 표현되었으며, 그것을 기단부에 적용한 것이 수미좌식 기단이다⁸⁾. 본래 중국 漢代 이전에는 판축기단이 성행하다가 秦·漢대 이르러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가구식 혹은 전축기단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면 중요 건축의 경우 수미좌 기단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불교가 대량으로 수입된 뒤에 일어난 건축형식의 변화 중 하나이다.⁹⁾

다보탑의 경우 특히 수미좌 기단의 분포가 많다. 31건 중 26건이 수미좌식 기단이다. 일반불탑의 경우 38건 중 12건만 수미좌인 것과 비교하면, 수미좌식 기단은 다보탑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각형탑일 경우 다보탑을 포함한 불탑 모두 수미좌형 기단에 기반하고 있다.

초기 다보여래의 공간은 주처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탑이 아니라 불단위에 이불병좌를 모신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단-탑신-상륜과 같은 분류가 무의미하나, 불단의 형태가 수미좌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초당대 이후 다보탑의 기단이 그 형식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미좌 기단의 형태를 유추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초기 다보탑은 기단이 낮아 계단과 난간이 거의 없다. 이 경우 보탑용출의 표현은 구름무늬, 그리고 이불병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불보살 및 청음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점점 묘처의 공간으로서 탑의 개념이 주입된 이후로는 기단이 매우 높아지지만, 복잡해지는 탑신부와 반대로 기단부는 高臺의 형태로 단순화된다.<Fig.1> 이는 경전상의 보탑용출을 기단부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건축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데 이르렀음을 뜻한다.¹⁰⁾

기단의 형태는 탑신의 형태에 좌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조가구식 구조의 전각형 탑신의 경우 기단부 또한 가구식 기단을 갖고 있으며, 밀종형 스투파로 분류되는 종형 탑신의 경우 초기에는 기단의 형태가 탑신의 형태를 따른다. 그러나 시간이

Fig.1 High foundation platform of Da-bo stupa(고대형태의 다보탑 기단, ②모사)

9) 이윤화저, 이상해 등 공역,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p.209

10) 이전에는 건축요소보다는 구름을 표현하여 공중에 떠 있는 다보탑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대에는 구름이 경전의 내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추가 되고 부적인 요소가 되며, 건축구성요소로서도 경전의 내용을 상징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경변의 내용이 어느 것이 더 잘 이해되었을지는 후대의 경변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7)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불단에서 불탁으로 칭하며 수미좌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허선호, 「조전시대 불탁장엄연구」, 2002, 동국대석논, p9)

8) 香水海라는 海中 침예한 절벽 위에 마치 하나의 宇宙樹처럼 피어난 연화를 상징한다.(허선호 「전계서」 pp.10~11)

지날수록 단순화되고, 높이가 점차 높아지면서 기단의 구성요소들이 적극 드러나기 시작한다.(13,18,19,20)

3-2. 계단

경전에서는 계단을 ‘方牙’라고 하여 불탑의 정방형에 맞게 4방위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¹¹⁾ 계단의 설치는 기능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단을 뚫음으로서 탑의 위상을 높이고, 한편으로 탑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설치한다. 그러나 본래 불탑의 이용은 戒를 받고 불도를 이룬 한정된 불자만이 가능하였다.¹²⁾

계단은 초기에는 기단의 높이가 낮아 거의 보이지 않고, 수대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4,5) 그러나 ①~⑤번 탑의 경우 기단부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탑의 형태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단 위에 공양물인 사자좌가 있어 탑체를 위한 건축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Fig.2 The lion-throne on the foundation platform(기단 위 사자좌,⑤ 기단부)

계단의 생성 초기에는 디딤돌+답도+디딤돌의 삼도로 구성되어 있다가 중당 이후에는 답도만 나타난다.(22) 이는 난간이나 답도의 무늬 등 의장적인 요소들은 화려하게 변화하지만 계단에 디딤돌이 표현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 불병좌를 모신 다보탑의 공간으로 올라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높은 곳에 있는 보탑을 부연설명 하기 위한 건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처음 계단이 출현하는 수대의 이불병좌 공간에서 유추하건데,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불에게 향하는 두 개의 계단이 나타나다가 하나의 계단 안에 삼분할 하여 나타나고 결국 답도만 남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생이 탑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법이 내려와 중생을 교화시켜 주변을 청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경전의 가르침이 표현된 것이다.

계단의 삼도구성은 일반불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불병좌를 안치한 탑의 내부모습을 표현해야 하는 다보탑의 정면성으로 인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뚜렷한 삼도(18 모사) 답도만 나타나는 사례(22,23 모사)

Fig.3 The change of stairs in Da-bo stupa

3-3. 난간

불교경전 중 造塔을 언급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欄干, 欄楯을 언급한다. 난간이나 난순은 돌레를 보호함으로서 외부의 惡法을 막고 내부의 신성한 힘을 중심으로 모아 無窮한 힘을 간직한다는 結界의 의미로서 摠持, 혹은 陀羅尼를 상징한다.¹³⁾ 그러나 다보탑도의 기단에서 현실적으로 난간이 표현된 경우는 31건 중 4건뿐이다. 기능적으로는 건축에서 층계, 다리, 마루 등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물이지만,¹⁴⁾ 장식성이 강하여 갖은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수대에 계단과 함께 계단의 돌림대로 난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구성요소는 상세하지 않다.(5) 또한 초당대부터 탑신부에서는 난간이 표현되고 있으나 기단부에 난간이 표현되는 것은 성당 대 이후이다. 탑신이 목조가구식인 경우 난간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돈황 다보탑도에 나타난 난간들은 모두 평난간이지만, 중당대 목조다보탑인 159굴에서는 난간법수와 난간동자주의 구분이 뚜렷하며, 만자형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21) 기단부의 난간은 4건만 나타나고 있지만 탑신부 및 계단의 난간표현과 통합하여 고찰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난간을 찾을 수 있다.

3-4. 기단의 修飾

기단의 수식은 대부분 단청, 지대석의 연화 무늬나 조각, 면석에 새긴 안상무늬 등이 있다. 이러한 수식은 다보탑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 불탑, 더 나아가 건조물의 기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법이다.

다만 탑신부의 의장물이 기단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경전상의 꽃공양, 향공양을 비롯하여 각종 공양물(사자좌, 보당 등)이 함께 장식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단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각식 다보

11) 탑을 짓는 법은 아래의 기단 사방에 난순을 둘러 세워 등그렇게 두겹으로 일으키고 방아가 사방으로 나왔으며 그 위에 반개와 장표와 윤상을 베푸는 것이다.(마하승기율 33)

12) 이는 戒壇이라는 불교적 상징물을 가능하게 하였다. 戒壇과 階段은 그 의미는 다르나 교리적 상징성과 건축계획적 특성상 공간에 품격을 지니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는다.

13) 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14) 미술사 분야에서는 남북국시대 신라왕릉에서 사용된 난간석은 인도 불탑의 요소를 받아들여 왕즉불 사상을 강화한 것이라고도 설명한다.(강우방, 「신라 십이지상의 분석과 해석」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pp.352~353)

탑이 자리 잡게 되면서 공양물은 배제한 체 구조와 의장으로 단순화된다.

기단과 난간의 꽃무늬는 경전의 꽃 공양이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며, 향공양의 경우는 기단 밖에 별도의 단을 만들어 향로와 향합을 함께 두기도 한다. 향로와 향합의 설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다보탑의 특징이다.

Fig.4 Hyangwan and Hyangro in 23 (23의 향로와 향합상세)

이 경우 향로를 받치는 부분이 기단부에 삽입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ㄴ의 형태이거나 월대처럼 넓은 기대를 갖추기도 한다.(23)

전반적으로 탑신부가 복잡하게 변하는데 반해 오히려 기단부의 구조와 의장은 매우 간단해지는 경향이 있다.

4. 탑신부

다보탑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산형, 스투파형, 전각형의 다양한 탑신이 출현하지만, 모두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다보탑의 원칙을 갖추고 있다. 법화경 견보탑품의 핵심인 이불병좌는 다보탑의 탑신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일산형

초기 다보탑은 설법중의 석가·다보여래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둥·벽체와 같은 구조물이 없이 이불병좌의 상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산을 묘사하였다. 특히 서위와 수대 다보탑의 일산은 지지하는 기둥이 없이 허공에 떠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일산형 공간은 초기 막고굴에서 부처를 묘사하는데 많이 나타난다.¹⁵⁾

Fig.5 General parasol space and parasol space of two Buddhas sitting side by side (일반적 일산공간과 이불병좌의 일산 공간)

이 시기 일산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를 공양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불병좌를 모신 다보탑 또한 살아있는 부처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산형 다보여래의 공간은 기둥이 추가되면서 장막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내부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감실의 단면처럼 화염 형태¹⁶⁾로도 나타난다.

일산형 다보탑의 의장은 매우 단순하다. 장막에 물결 또는 원형의 무늬를 그리거나 보개를 섞어 박은 장막도 나타난다. 이후 건축의 형태를 지니면서 다보탑은 화려하

Tab.5 Parasol Da-bo stupa in Dunhuang Mogao Grottoes (돈황막고굴에 나타나는 일산형 다보탑)

	①285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②303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③285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④154굴(출처:돈황석굴예술)
북조 · 만당				
	④420굴(출처:돈황석굴전집)	⑤276굴(출처:돈황석굴전집)	⑥303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⑦303굴(출처:돈황석굴전집)
수				

고 복잡한 구조물로 변하기 시작한다.¹⁷⁾

4-2. 스투파형 다보탑

唐代에 이르면 다보탑은 기단, 탑신 및 상륜이 뚜렷이 구분된다. 처음에는 일반탑과 마찬가지로 인도 스투파와 유사한 형태의 종형¹⁸⁾ 탑신과 중국 전각식탑의 방형 탑신이 등장한다. 초기의 모호했던 탑신부가 기단 및 상륜부와 뚜렷이 분리되며, 탑신내에서도 지붕부가 나타나 임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Fig.6 Paralleled oblique drawing stupa and facade bird-eye angle drawing Da-bo stupa(평행사선도법을 사용한 일반불탑과 정면관이 강조된 다보탑;막 138굴 만당, ⑪)

다보탑의 탑신부는 일관되게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전상의 이불병좌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반탑과 같이 평행사선도법에 의하여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도록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1) 鐘形탑신

① 탑신 구조와 의장

종형 탑신은 초당~중당 대에 나타나며 총 7건을 차지

15) 돈황 막고굴 420굴에 나타나는 일산은 허공에서 부처를 따라다니며 공양되는 공양물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산은 불교의 인연 설화인 찬집백연경에도 나타난다. “이 때 그 어린이는 멀리서 세존을 보자 마음이 크게 기뻐 어머니에게 꽃을 얻고자 하므로 어머니가 곧 사서 주자 어린이는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 위에 뿌리자 허공중에서 꽃 일산으로 변화하여 부처님을 따라 가고 멈추었다.” (홍영의, 『撰集百緣經』, 漢陽文化社, 1965, p.68)

16) 복주 감실형 다보탑에 나타나는 지지대(기둥)와 곡선형태의 지붕부는 北魏 正光 4년(523)에 세워진 하남 송악사 15층 전탑의 角柱와 佛龕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는 인도의 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인도의 초기 주거건축의 형태와 유사하며, 인도 내 Thoda village, bikkapathimund에서 그 원주형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천득명, 『전탑』, 대원사, 1998, p.30)

17) 만당대에 이불병좌를 모신 공간이 탑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산으로도 공간을 구분짓지 않고 있지만, 탑체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일산형 안에 구분하였다.

18) 종형탑신은 복발형 혹은 스투파형이라고도 한다. 복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륜부의 고찰에서 상륜의 주요 구성요소인 복발이 강조된 상륜부를 복발강조형으로 분류하고 ‘복발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바, 탑신부에서는 상륜부의 복발형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종형이라고 칭하였다.(5-2상륜부의 등장)

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붕부나 상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탑신부는 기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한정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내부구조는 통칸구조와 2칸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이불병좌의 배치와 관계가 있다. 하나의 불단 위에 함께 모시는 경우와 서로 다른 불단에 있더라도 한 칸에 모시는 경우는 통칸의 구조이다. 그러나 각각 양분되어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앙의 중심구조체를 기준으로 2칸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¹⁹⁾ 탑신의 벽체에는 줄기 또는 덩굴과 같은 식물무늬의 당초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꽃 공양이 탑신의 단청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② 지붕부 구조와 의장

탑신부의 지붕은 전돌을 적층하는 구조인데 초기에 해당하는 초당대 옥개석은 2단혹은 3단구성으로 윗 단이 아랫단 보다 긴 積出식이다.²⁰⁾ 기단부와 함께 고찰하면, 3단의 옥개석을 가진 다보탑의 경우 기단부가 2단 옥개석을 가진 다보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기단부의 갑석과 저석도 이중 삼중으로 적층되어 나타난다.

Fig.7 The stepped-level roof of Da-bo stupa(다보탑 탑신의 층단 지붕형태;⑧,⑬)

中唐代 다보탑은 목조 가구식에서 볼 수 있는 연목과 공포가 옥개에 표현되어 있으며, 탑 둘레에 난간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불탑이 인도 묘탑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漢化되어 가는 과정을 다보탑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다보탑의 경우 초기에는 불탑과 전혀 다른 공간을 보여주고 있으나, 점차 탑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일반탑의 변천과정을 겪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보탑 지붕 장식으로는 山花蕉葉²¹⁾, 구슬, 꽃봉오리

19) “다보불이 보탑 안에 반자리를 나누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어 앉으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께서 그 탑 속에 들어가시어 절반의 자리에 앉으시어 결과부좌하시니라.”(김영배, 『(역주)법화경연해 권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p.70)

20) 옥개석의 積出식 쌓기는 층단을 내밀어 쌓는 것으로 인도 스투파 상부 하비카의 층단내밀어쌓기[積出]와 관련이 있다.(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 說’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 2011.4)

Tab.6 Stupa styled Da-bo stupa in Dunhuang Mogao Grottoes(돈황막고굴에 나타나는 스투파형 다보탑)

초당	(8332굴(출차돈황석굴전집))	(9340굴(출차돈황석굴전집))	(10335굴(출차돈황석굴전집))	(1168굴(출차돈황석굴연구))	(12202굴(출차돈황석굴전집))	(13331굴(출차돈황석굴전집))
성당	(1446굴(출차돈황석굴예술))	(1531굴(출차돈황석굴전집))	(1645굴(출차돈황석굴예술))	(17217굴(출차돈황석굴전집))		
중당 · 만당	(19361굴(출차돈황석굴전집))	(20231굴(출차돈황석굴전집))				(2314굴(출차돈황석굴예술))

및 옥개석 아래에 매달리는 풍경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장식은 주로 중당대 이후 다보탑에 나타난다.

初唐代 다보탑 지붕 장식은 구슬 형태 또는 꽃받침이 있는 꽃봉오리 형태가 옥개석 위에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후 더욱 화려한 山花蕉葉이 상륜부 복발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와 같은 장식은 주로 중당대 이후의 다보탑에 나타난다.

(2) 方形탑신

① 탑신의 구조와 의장

방형 탑신은 총 5건으로 초당~중당에 걸쳐 나타난다. 이 시기 이불병좌는 모두 1칸 구성의 탑신에 안치하는데 다만 중당 다보탑의 경우 이불병좌 뒤 3쪽의 병풍이 놓여있으며, 탑신 주변 목결구 기법인 柱料와 昌防, 落陽刻, 평난간과 같은 목구조의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는 구조적으로 종형 탑신에 비해 목구조의 형태를 적극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지붕의 구조와 의장

방형탑신의 지붕도 적층구조이나 4단 옥개석이 등장하

는 등 종형탑신에 비해 지붕이 높아 상대적으로 세장비가 높다. 이러한 적층의 옥개구조는 塔塔의 지붕돌 쌓기 기법과 같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상하 층단이 있다. 가장 아랫단은 탑신의 너비와 같으며, 옥개석에는 전반적으로 원형, 마름모의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Fig.8 Ornament of a roof in Da-bo stupa(방형탑신 다보탑의 지붕장식;(14,15 모사))

지붕부 장식 요소는 종형 탑신과 유사하지만 종형 탑신의 장식보다 더 크고 초엽도 화려해진다. 성당시기 다보탑인 45호굴에는 붉은 색의 구름모양 초엽이 옥개석과 탑상부에 나타나기도 한다.

4-3. 전각형 다보탑

전각형 다보탑은 8건이며 막고굴 벽화중 늦은 시기인 盛唐 ~ 宋代에 출현한다.²²⁾ 이 시기에 이르면 다보탑은

21) 초엽은 파초라고도 한다. 탑의 상륜부를 장식하는 요소로 보협인 탑, 오륜탑 등의 옥개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리장치(감은사, 송림사)를 비롯하여 궁궐의 당가에서 나타난다.

Tab.7 Royal palace typed Da-bo stupa in Dunhuang Mogao Grottoes(돈황막고굴에 나타나는 전각형 다보탑)

성당 · 중당	⑬23굴, 성당(출처:돈황석굴전집)			⑫159굴, 중당(출처:돈황석굴전집)	⑫360굴, 중당(출처:돈황석굴전집)
만당	⑫12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⑫156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⑫85굴(출처:돈황석굴전집)	⑫714굴(출처:돈황석굴예술)	
오대 · 송	⑫58굴(출처:돈황석굴예술)			⑫55굴(출처:돈황석굴전집)	⑫454굴(출처:돈황석굴전집)

스투파형 다보탑은 현저히 줄어들고 단층 목구조의 전각 형태로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1) 탑신부의 구조와 의장

Fig.9 The 4 floors stupa for Sakyamuni Finger Sarira, Famen Temple Museum, Xian
(법문사지출토 소동탑)

돈황 막고굴의 전각형 다보탑은 모두 단층이며 정면성이 강조된 투시도법이 적용되었다. 다른 탑이나 건축도는 평행사선기법으로 묘사되어 건축의 외관과 정면과 측면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대신 정면과 함께 내부공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기 다보탑은 3칸 규모로 여간과 협간의 크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내부에 이불병좌를 안치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

다. 360굴 다보탑의 경우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서로 독립된 불단위에 있으며 여간에 향로와 향합을 두어 여간이 협간보다 큰 간살이를 하고 있다.(⑫) 반면 성당기의 156굴 다보탑은 여간에 이불병좌를 함께 봉안하여 여간이 넓고 협간은 띠살창호로 마감하였다.(⑫) 이러한 형태는 당시 사리기 및 소동탑의 목조건축의 형식이 다보탑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⑬)

(2) 지붕부의 구조와 의장

전각형 다보탑의 지붕은 모두 기와지붕이며, 다양한 색의 기와가 묘사되어 있다. 형태적으로는 모임지붕이 대다수이고, 상륜부를 올리기 위해 용마루를 두어 우진각지붕으로 변형된 형태도 나타난다. 또한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높은 지붕과 깊은 지붕을 형상화하였다.

벽체와 지붕 사이는 공포대를 두어 지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두삼승식의 형태이다. 포벽에는 화반이 있으며, 출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건축 요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당시 실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보탑을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지붕부 장식부재는 마루에 올라가는 장식기와와 아래에 달리는 풍경이 있다. 특히 기와의 경우 아래기기와(곱

22) 전각형 및 전각형이 중첩된 중층형 탑과의 출현과 영향에 대해서는 껀켄이 주장한 '인도 스투파의 변천설'과 '레더로스의 '중국 자체 기원설'이 있다. 전각형 탑에 대한 기원은 위의 견해를 정리하여 기술한 다음의 연구를 참조 할수 있다. 김인창, 「중층형 탑파의 기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5.10

새기와)와 귀면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당 다보탑의 경우 붉은색의 바래기기와와 귀면와가 좌·우 2개의 내림마루 끝에 장식되어 있으며, 추녀 아래 풍경이 매달려 있다. 이 시기에는 스투파형 다보탑에서 주된 장식부재로 사용되던 초엽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보배방울과 영락은 다보탑을 공양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5. 상륜부²³⁾의 변화고찰

상륜부는 부처의 사리 봉안처인 覆鉢을 포함하는 부분으로서 불탑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불탑건립에 있어 탑상부의 설치의 필수적이며, 일반 건조물과 확연히 차이나는 건축요소이다.

상륜부는 露盤, 복발, 寶輪, 寶蓋, 寶珠로 나눌 수 있다. 이 요소들은 경전에서 언급하는 탑의 건축요소²⁴⁾와 인도 초기불탑의 형태의 변형이며, 경전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여기에 후대에 仰花, 水煙, 仰月이 장식요소로 추가되어 현존 불탑에 나타난다.

그러나 돈황 막고굴 다보탑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상륜의 형태는 초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1. 상륜부가 없는 다보여래의 공간

초기 다보탑은 기단-탑신-상륜이 구분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탑의 상륜부에 해당되는 요소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불탑에서 상륜부가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상륜은 없지만 상륜의 요소이며, 훗날 보개와 보륜에 나타나는 초엽과 'W'무늬 띠대장식이 있다. 이것은 이불병좌의 공간을 덮는 일산이나 장막에 장식을 더한 것이다.

Fig.10 A line drawing of upper-parasol (① 일산 상부 모사)

23) 상륜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상륜부, 중국에서는 탑두부라고 한다. 이희봉은 탑의 용어에 대해서는 제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상륜은 탑상의 한 부분을 칭하는 것으로 탑의 전체를 칭하는 용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상륜부대신 탑상부로, 복발을 불단으로 불탑의 세부용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고찰 및 제안」, 건축역사연구, 2010.8)

24) 강우방·신용철, 『탑: 한국미의 재발견5』, 솔, 2003, p.63
『大正藏』 제24권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제자였던 사리불이 열반 후에 사리탑을 어떻게 세울지를 묻자 “두 겹으로 基礎를 하고 覆鉢을 놓고 平頭를 놓되 그 위에 相輪을 하나에서 열셋까지로 하고 다음에 병(瓶; 寶瓶)을 두라” 여기서 기초는 노반, 평두는 仰花, 병은 보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2. 상륜부의 등장

初唐代에 들어와서 다보탑에 처음으로 상륜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기 다보탑의 다른 건축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반탑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륜이 도입되도록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 상륜은 보륜이 강조되어 여러개의 보륜이 구성되는 보륜강조형과 복발이 강조되어 두겹 이상의 복발이 나타나는 복발강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보륜형

보륜이 강조된 초당대 다보탑의 모습은 일산이 변형된 것인데 前代의 일산에 있었던 초엽과 'W'자 무늬가 이어지며, 보륜과 보개는 일산을 축소한 형태이다<Fig.12>. 이것은 보륜과 보개가 일산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⁵⁾ 일산형 보륜 외에 원반형의 보륜도 있으며, 보륜의 측면에 초엽의 장식과 영락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Fig.12-2>. 초당대의 일산형 보개, 보륜 중 보개는 일산의 형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보륜의 경우 점차 원반형태로 변하고 있다<Fig.12-3>.

Fig.11 The pagoda summit of parasol type(보륜형 상륜)

(2) 복발형

복발이 강조된 탑상부는 복발과 노반을 중심으로 상륜부를 구성한다. 노반은 복발을 받치는 기단의 역할을 하며 수미와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불상의 불단을 수미단으로 장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노반은 복발을 높여주고 강조해주는 요소이다. 노반의 장식요소로 초엽이 사용되는데, 노반과 초엽의 일체화된 형태도 있다. 노반과 복발이 강조된 대표적인 다보탑인 中唐代 ①9번 다보탑의 탑상부는 노반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복발의 규모도 크게 표현하였으면 주변 수식도 많다. 같은 시기 ②0번 다보탑의 경우 지붕부 복발에 크고, 화려한 문양을 그려져 있으며, 탑상부 복발을 받치는 노반을 중첩시켜 복발을 높여주고 있다.

25) 본래 인도 스투파에서는 원반마퀴모양의 밋밋한 양산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원반 마구리에 꽃장식된 보륜과 제일 위쪽에 보개로 마감되어 나타난다.(이희봉, 「중국 번역 불교의 불탑 오류 1,800년」 p46, 신라연구원 15차 월례발표회)

상륜부가 등장 이후, 목조 전각형 다보탑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보탑에는 2개의 복발이 있다. 스투파형 탑신에서 파생된 지붕부 복발과 노반 위의 탑상부 복발이다. 엄밀하게 지붕부 복발은 탑상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형태만 유지한 것이다. 이시기에 지붕부 복발은 무늬를 그리거나 방울장식을 달아 다보탑체를 장식하는 성격이 강하고, 탑상부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5-3. 상륜부의 일반화

목조 전각형 다보탑 등장 이후, 탑상부는 노반-양화-보륜/보개-보주의 구성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탑상부의 복발은 약화되고 보륜과 보개가 강조되는데, 이는 일반 불탑의 탑상부 변화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부처의 사리는 초기 인도 스투파의 복발에 안치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 안치되면서, 탑상부는 복발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 복발의 기대인 평두 등을 갖춘 구조적인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탑상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복발이 간소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상륜부의 구성은 양화-보륜-보개-양화-보주의 형식으로 일반화 된다.

Fig.12 Standardized pagoda summit(정형화된 상륜부)

5-4. 상륜부의 간소화

전각형 목조다보탑에서 보륜과 보개위주로 정형화되었던 탑상부는 晚唐代에는 보주가 강조되면서 나머지요소들이 생략되는 등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변한다. 탑신에 비하여 입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작아지며, 복발만이 아니라 노반, 보개, 보주만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탑의 상부에 보주만을 두는 사례도 있어 일반 불전과 구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²⁶⁾ 보주만 있는 경우는 지붕의 형태도 용마루가 확실히 드러나는 우진각지붕을 하

26) 실제로 불전의 용마루에 보주를 올려놓은 사례가 있다. 양산 통도사 대웅전 용마루 보주, 밀양 표충사 대광전 용마루 보주, 김제 금산사 대장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용마루 귀면보주,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용마루 청기와, 군산 상주사 대웅전 용마루 청기와,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용마루 청기와, 서산 개심사 대웅보전 용마루 청기와 등이 그러한데, 이중 일부는 佛塔地였다는 설명도 있어 불탑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고 있어 탑신부에 모셔진 이불병좌상을 제외하면, 다보탑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Fig.13 Simplified pagoda summit(간소화된 상륜부)

6. 결 론

돈황 막고굴의 다보탑도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하였던 초기부터 宋元代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보탑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현존하는 다보탑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다보탑의 원형에 대한 문제, 불교경전과 다보탑의 관계, 그리고 다보탑과 일반 불탑과의 관계설정 등의 문제가 엄밀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돈황 막고굴의 다보탑도를 통해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축요소에 대하여 그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돈황의 다보탑도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기본적인 造塔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는 점차 일반탑의 모습으로 변하지만,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제시하는 寶塔湧出, 二佛竝坐의 기본적 본질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일반 불탑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둘째, 돈황 막고굴의 다보탑 탑신은 시기에 따라 일산형, 스투파형, 전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산형 다보탑은 기둥이나 벽체 등의 건축요소가 구사되지 않고 단순히 햇빛을 가리기 위한 일산을 부처의 위에 묘사한 형태이지만, 二佛竝坐와 寶塔湧出의 사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스투파형 다보탑은 初唐~中唐대에 주로 나타나며 일반불탑의 초기 모습과 같이 인도 스투파형을 그대로 따르거나 동아시아 목구조건축과 융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盛唐~宋代에 나타나는 전각형 다보탑은 기존 불탑의 건축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이불병좌라는 다보탑의 기본원리를 제외하면 탑의 형태 및 세부의 장에 있어서 일반불탑과의 차이가 적어지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단부는 돈황 다보탑도의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후대에는 高臺의 형태로 나타난다. 형태상으로는 총 31기의 다보탑도 중 26기에 수미좌형 기단이 묘사되

어 있다. 中唐대부터는 기단과 함께 사자좌 및 계단과 탑도의 삼도가 구성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요소들은 사라지고 高臺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다보탑이 형태적으로 일반 불탑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상륜의 존재는 불탑이 일반건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지만, 일산형과 같은 초기 다보탑은 견보탑품에서 설하는 다보여래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륜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양3국에서 실제로 다보탑이 건립되고 특히 일반탑이 漢化되면서 돈황의 다보탑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상륜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唐代에 이르면 보륜이 강조되거나 복발이 강조되는 등 다양하고 화려하게 나타나다가, 보주만으로 상륜을 표시하면서 점차 간소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References

1. Academy of Don-huang(敦煌研究院), 『The art of Dunhuangcaves(敦煌石窟藝術)』, Nanjing(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4
2. Academy of Don-huang(敦煌研究院), 『completed works of Dunhuangcaves(敦煌石窟全集)』 vol4 · 21 · 22 · 23 · 25, Shanghai(上海人民出版社), 2000
3. Kim, Young-Bae(김영배), 『(Note)The sutra of Lotus in Korean(역주 법화경)』 Vol4, King Sejong the great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4. Cheon, Deuk-Youm(천득염), 『Brick stone pagoda(전탑)』, Daewonsa(대원사), 2002
5. Keisho Tsikamoto · Lee, Jeong-Soo(塚本啓祥저 · 이정수역), 『Source Elements of the Lutus Sutra(法華經の成立と背景)』, Unjusa(운주사), 2010
6. Kim, Bue-Dyel·Cho, Jeong-Sik(김버들 · 조정식), 「A comparative study of Da-bo stupa in Korea, China and Japan」 (대한건축학회), AIK(대한건축학회), 2010.6
7. Lee, Hee-Bong(이희봉), 「Fundamental Examination and Renaming of the Terminology of the Buddhist Pagoda(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KAAH(한국건축역사학회), 2010.8
8. <http://ebti.dongguk.ac.kr>

접수(2013. 8. 14)

수정(1차: 2013. 10. 10)

게재확정(2013. 10. 10)

Tab.8 Drawing list of Da-bo stupa in Dunhuang Mogao Grottoes(돈황 막고굴 다보탑도 목록;총 31건)

구분 시기	입산형				스투파형(stupa)				전각형			
	① 285굴	② 303굴	③ 285굴	⑦ 303굴	⑧ 332굴	⑨ 340굴	⑩ 335굴	⑪ 68굴	⑫ 202굴	⑬ 331굴		
북조												
	④ 420굴	⑤ 276굴	⑥ 303굴									
수												
당												
중당	② 154굴											
만당												
오대												
송(한)												